

박찬일의 '밥 먹고 합시다'



농사와 수능 도시락

자그마치 40년도 넘는 옛일이 생각난다. 그때는 수능이 아니라 학력고사라 불렀다. 고등학교 내내 공부 안 하고 놀고 방황했는데 어머니는 한 번도 공부하란 말을 안 하셨다. 어련히 알아서 하지 않았겠느냐고 나중에 말씀하셨지만, 당신도 거의 혼자서 벌여 살림을 꾸리느라 자식 공부를 들여다 볼 틈이 없었을 것이다. 어머니는 새벽 첫 차 타고 나가 장 보시고 허름한 밥집을 꾸렸다. 밤 12시가 되어야 돌아오셨는데, 생각해 보니 말이 안 되는 일상이었다. 하루 18시간 노동을 주 6일, 7일 치렀던 것이었다. 그래서인지 일요일엔 쉼이 없었다. 오히려 쉬면 더 아프다 하시며, 내가 노동자가 되어 일을 해보니, 어머니의 그 노동이 말도 안되게 실감이 나고 마음이 아파서 엉엉 운다.

차리라는 언론 기사를 보니 옛 신문도 그런 기사가 실렸던 것 같다. 하지만 노동해야 하는 엄마를 둔 많은 수험생은 그때나 지금이나 엄마씨의 훌륭한 시험 밥을 잘 얻어먹기는 쉬운 일이 아닐 테지.

시험장에 희한하게도 일반 고3은 한 명도 없었다. 머리 기르고 늙스그레(?)한 재수, 삼수생만 가득했다. 말투도 거의 사투리가 많았다. 나중에야 그 이유를 알았는데, 내가 필수과목인 실업 중에서 선택을 농업으로 했기 때문이었다. 우리 모교는 상업을 가르쳤지만, 나는 뼈박한 마음에 내 맘대로 농업을 선택했던 것이었다. 물론 광업, 수산업, 공업 같은 것도 있었다.

서울에 농업을 선택한 학교가 없으니, 서울에서 농업 시험 치르는 수험생은 죄다 학원 유학 온 농촌지역 출신 재수, 삼수생이었다. 시험 진행 편의상 그들을 한 학교에 몰았고, 서울 고3으로는 나 혼자 그 학교에 간 것이었다.

풀기 어려웠던 농업시험 문제는 많았다. 기출문제에도 이런 게 나오면 거의 틀렸다. "다음 중 배나무의 수형은?" 이 질문에 과실나무의 수형이 그림으로 4개 나

열되어 있었다. 닭과 소의 질병을 묻거나 돼지 품종과 임신기간은 외워서 맞힐 수 있었지만 과실나무 외형의 실루엣은 외운다고 외워지는 게 아니었다. '쌀나무'나 '감자나무'까지는 아니였어도 농촌에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풀기 어려운 문제이리라.

옛날, 군대 시절에 전라도나 충청도 출신 신병이 전 입 오면 선임병들이 아주 좋아했다. 높은 확률로 농촌 출신이어서 군대가 요구하는 삽질이나 각종 잡일을 잘 해내기 때문이었다. 이전 전국이 도시화되고, 농촌엔 젊은이가 없다. 우리나라는 사실상 농촌을 포기한 지 오래이고, 특정 산물은 농사짓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보조금도 준다. 음식문화는 요란하게 발달하고, 요리 프로그램은 전 국민적 화제가 되는 나라에서 농사는 점점 낡은 일이다. 외국 노동자 손을 빌리지 않으면 농사도, 밭일도, 축산도 없는 나라가 되었다. 참담하고 신기한 일이다.

그때 우연히 농업을 배우면서 나는 요리사가 되어서 도 농촌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 농촌이 사라져 간다. <음식 칼럼니스트>

社說

통합 의대만이 전남 국립의대 확실한 해결책

전남지역 30년 숙원인 전남 국립의대 유지를 위해서는 목포대와 순천대의 통합 의대 방식을 도출해야 한다는 지역의 목소리가 높다. 그동안 전남도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국립 의대 설립을 '공모안'과 '통합 의대안' 등 2가지 방식으로 나눠 추진해왔다.

하지만 전남도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최근 의료 사태 해결을 위해 '여야 의정 협의체'가 발족했기 때문이다. 의정 협의체는 의정 갈등은 물론 다양한 의료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전남도는 어떻게든 최단 시간에 '통합 의대안'을 만들어 협의체 의결을 노는 테이블에 올려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여론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이번 기회에 '통합 의대안'을 도출하자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그동안 전남 동·서부권은 각종 현안과 사업마다 대립·경쟁하면서 갈등의 골이 커졌다. 여기에 국립 의대마저 한쪽으로 배정되면 의료의 균형 있는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동·서

갈등 해소는 요원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통합 의대안'은 전남 국립의대 신설 문제를 '여야 의정 협의체' 논의의 안건에 포함시켜야 하는 시기적 절박감, 대학들의 생존과 미래 발전, 동서부 지역 화합과 전남 도민 건강권 확보 등 현안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모책임에 틀림없다.

이대 정권을 둘러싼 의정 갈등 해소가 쉽지 않은 상황인 만큼 전남에 국립 의대를 신설하는 것은 엄청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를 설득하기 쉬운 단일안(통합 의대안) 대신 공모를 통한 방식은 추동력이 약할 수밖에 없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그제 '국립 의대 유치'와 '양 대학이 캠퍼스별로 나눠 부속병원을 관리하는 체제' 등을 제시하며 15일까지 양 대학이 통합을 도출해달라고 호소했다. 목포대와 순천대 총장은 대학의 미래와 전남 도민의 숙원을 위해 통 큰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

옛 광주교도소 유해 '여순희생자' 연관 조사를

옛 광주교도소 부지에서 발굴된 무연고 유해 219구 가운데 제주4·3사건 희생자 유골이 확인됐다. 이와 맞물려 같은 시기 발생한 10·19 여순사건 관련자도 수감 기록이 다수 확인됨에 따라 무연고자 유해 중 여순사건 희생자가 있는지 시급히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4·3평화재단 등에 따르면 제주도청이 최근 옛 광주교도소에서 발굴된 무연고자 유해와 제주 4·3사건 유족의 유전자 정보를 대조한 결과 유해 1구가 일치한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유해는 제주4·3 행방불명인 유족협의회 양성호 회장의 조부인 양천중씨로 확인됐다. 당시 양 씨는 1949년 7월 낯선 땅을 마치고 귀가하다 체포돼 광주교도소에 수감됐다가 12월 55세 나이로 사망했다.

옛 광주교도소 부지 무연고 유해는 지난 2019년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가 합장묘를 개장하는 과

정에서 나왔다. 조사위는 유해 일부가 5·18행방불명자나 암매장 피해자일 가능성을 두고 조사를 벌였지만 1980년 이전에 묻힌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제주도청, 제주4·3평화재단은 5·18진상조사위로부터 유해 관련 정보를 받아 유족들 유전자와 대조작업을 거쳐 양씨의 신원을 최종 확인했다.

이번 유해 확인을 계기로 여순사건 희생자 연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최근 조사 활동을 종료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는 유족들의 유전자 정보를 수집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관계자는 "그동안 유해발굴로 4억 예산을 받았는데 내년 예산안이 2억으로 줄어 유족들 유전자를 확보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차체에 고령 유족들이 유전자 대조작업을 통해 유해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無等鼓

가수 정훈희의 목소리를 좋아한다. 그 래서 여운이 길었던 영화 '헤어질 결심'에서 함춘호의 기타 연주에 맞춰 정훈희-송창식이 부르는 '안개'가 흐를 때 노래에 빠져 한참을 앓아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에 또 한번 매료된 건 5·18 40주년 기념식에서 상영된 '내 정은 청산이오'. 광주에서 상영된 오월 현장, 도미야마 다에코의 석판화, 음악이 어우러진 25분 분량의 작품 마지막, 피아노에 맞춰 그녀가 노래한다. "날 기억해 주는 것 그걸로 되었소/ 언제 우리

책을 읽다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다. 넥스트 앨범 디자인 작업을 한 전상일과의 인터뷰에서다. "예전에 해철이 형 뮤직비디오를 만들어 준 친구가 있어요.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서 만들었는데요. 방송 금지되어서 해철이 형이 원동해했었는데"라는 대목이다. 광주에서 열리는 영화제의 오월 현장, 도미야마 다에코의 석판화, 음악이 어우러진 25분 분량의 작품 마지막, 피아노에 맞춰 그녀가 노래한다. "날 기억해 주는 것 그걸로 되었소/ 언제 우리

신해철과 오월 광주

가수 신해철의 10주기를 맞아 전문 인터뷰어 지승호가 쓴 '마왕은 살아있다'를 흥미롭게 읽었다. 신해철은 이미 이 세상에 없기에, 그와 인연이 있는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5주기 때 발간한 '아 신해철'에 실렸던 글 중 일부를 담은 기록이다. 책에는 대중음악사 명반으로 꼽히는 넥스트 2집을 비롯해 '일상으로의 초대' 등 대표작과 라디오 DJ 시절 사회적 이슈에 대한 발언 등 다양한 이야기가 나온다.

신해철의 어떤 음악에 광주의 이야기가 담겨 있을지 궁금해했다. 사회적 발언에 악물어 다는 사람들에게 "나의 정재일과 '달리기' 등을 쓴 박창학 작사가 참여한 곡이다. 가수 신해철의 10주기를 맞아 전문 인터뷰어 지승호가 쓴 '마왕은 살아있다'를 흥미롭게 읽었다. 신해철은 이미 이 세상에 없기에, 그와 인연이 있는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5주기 때 발간한 '아 신해철'에 실렸던 글 중 일부를 담은 기록이다. 책에는 대중음악사 명반으로 꼽히는 넥스트 2집을 비롯해 '일상으로의 초대' 등 대표작과 라디오 DJ 시절 사회적 이슈에 대한 발언 등 다양한 이야기가 나온다.

광주의 이야기가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전해지길 바란다. 한강의 소설 '소년이 온다'가 전세계인에게 광주를 각인시켰듯, 정훈희의 노래가 흐르는 작품 '내 정은 청산이오'와 5월 광주가 담긴 신해철의 뮤직비디오도 자주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김미은 여론매체부장 mekim@

의료칼럼

골든타임이 생사를 가르는 급성 심근경색



최규영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순환기내과 전문의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환절기에는 갑자기 낮아진 기온에 혈관이 수축해 새벽에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하는 등 심근경색의 위험이 높아져 주의해야 한다. 특히 돌연사의 주범인 급성심근경색증은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무서운 질환이므로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최근 5년간 급성 심근경색증 진료 추이를 살펴보면 진료 인원은 2019년 약 11만 9000명에서 2023년 약 13만 9000명으로 약 16.8% 증가했다. 통계청의 2022년 사망원인통계에서도 급성 심근경색증 등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총 1만 4739명으로 집계됐다. 심혈관 질환은 암에 이어 국내 사망원인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위험한 질환으로 평소에는 괜찮다가 갑자기 악화돼 건강을 위협하고 돌연사로 이어지기도 한다. 특히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는 혈관 수축으로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일교차가 크면 온도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우리 몸은 평소보다 많은 에너지를 소비해 신체적, 정신적 피로도가 높아지고 면역력이 떨어진다. 환절기 급격한 기온 변화는 혈관을 수축시켜 협착을 상습시키고 혈액순

환을 방해하게 된다. 이에 따라 혈관 내 혈전 형성을 촉진하게 되고 혈관 수축과 혈전 생성으로 심장에 부담이 가중되며 심근경색 발생 확률을 높이게 된다. 일교차가 10도 이상이 되면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4%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구화된 식습관, 흡연, 스트레스 등의 원인으로 국내에서도 심장환자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증상이 나타나 사망에 이르는 급성 심근경색 환자도 20대부터 중년 이상까지 다양한 연령대에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급성 심근경색은 관상동맥이 갑작스럽게 완전히 막혀 혈액이 통하지 않아 발생하는 질환으로, 심장에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 심장 근육이 손상돼 가슴 통증,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급성 심근경색은 초기 사망률이 40%로 병원으로 이동해 치료를 진행해도 병원 내 사망률이 5~10%에 이른다.

급성 심근경색의 대표적인 전조증상은 흉통이다. 가슴을 짓누르거나 조이거나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나타나는데, 통증이 10분 이상 지속되면 참지 말고 최대한 빨리 병원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통증이 심해지면 목, 턱, 어깨, 왼쪽 팔로 뻗기기도 하며 안색이 창백해지고 식은땀을 흘리기도 한다. 증상이 많이 진행되면 심장 기능을 저하시켜 호흡곤란이 오고 심한 부정맥을 유발해 심장이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것이다.

동맥경화증,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이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 심근경색의 발생 위험이 더욱 높다. 새벽 전바람에 노출될 경우 순간적으로 관상동맥이 수축하기 때문. 심근경색의 경우 치료의 관건은 시간

으로 빨리 치료할수록 심장의 근육을 더 많이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혈액 공급이 끊긴 상태가 지속되면 심장 근육이 영구적으로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막힌 혈관을 열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심근경색 증상 발현 시 비교적 빠르게 병원을 찾았다면 약물치료와 시술 치료를 시도한다. 약물치료는 항혈소판제, 항응고제, 항협심증 약제, 동맥경화 억제 및 지질강하제, 재형성 예방 약제 등을 환자의 상태에 맞춰 처방하여 진행한다.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는 치료법은 응급 관상동맥 중재시술로 풍선확장술과 스텐트 삽입술을 통해 막힌 혈관을 신속하게 넓혀준다.

심근경색 예방을 위해서는 평소 생활습관의 관리가 중요하다. 붉은 육류나 튀김, 버터 등 기름진 음식과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은 지양하고 섬유소와 단백질이 풍부한 채소, 과일, 콩 등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나트륨 함량이 높은 음식은 체내의 혈액량을 증가시켜 심장과 혈관에 부담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저염식 식단이 좋으며 체내 수분이 부족하면 심박수가 높아지므로 충분한 수분 섭취도 필수다. 카페인 역시 심장에 자극이 되므로 지양하고 흡연과 음주는 삼가야 한다.

동맥경화증,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이나 가족력이 있는 사람은 새벽 전바람에 노출될 경우 순간적으로 관상동맥이 수축해 심근경색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심폐 단련을 위한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고 아침에 야외에서 운동을 할 경우 보온에 신경 써야 하며 가슴 통증이 생기면 즉시 멈추고 병원을 찾아야 한다.

교통약자, 편의가 아닌 당연한 권리의 주체

교통약자법에 따르면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도시인구의 약 30%를 차지한다.

두박이 위킴아미라 주5일 아침, 저녁마다 도보로 어린이집 등하원을 시키고 있으니 필자 또한 교통약자에 속하겠다. 어린이집까지는 세 번의 횡단보도를 지나 15분 정도가 소요된다. 길지 않은 거리임에도, 만 1세 아이를 유아차에 싣고 걷기에는 생각보다 위험요소가 많다. 특히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에는 신경을 곤두세우게 된다. 노면이 패이거나 끼인 부분도 많고, 횡단보도에서 인도로 올라가는 턱이 높거나 일정치 않아 유아차 운행에 애를 먹을 때가 많다. 그 와중에 신호도 짧아서 유아차를 끌고 거의 뛰다시피 건너야 하니 그야말로 위험천만하다.

인도나 차도의 구분이 없는 생활도로(이면도로)에서는 보행권 자체가 침해당하는 경우도 많다. 또 차와 사람이 동시에 통행할 경우에는 사람의 통행이 우선이라고 한다. 언뜻 보행자의 권리가 먼저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도 그렇지? 적어도 교통약자의 관점에서 볼 때 생활도로에서 보행자는 수동적인 입장에 놓일 때가 많다. 특히 유아차나 휠체어를 동반한 보행자의 경우 차와 동시에 통행하는 상황에서 신호등이 없으니 차가 지나가거나 혹은 멈춰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연감생선 유아차를 동반해 대중교통(버스)을 이용하는 일은 시도조차 하기 어렵다. 당사자로서 그 이유를 말하자면 일단 유아차 승차가 가능한 저상버스를 발견하기 쉽지 않다. 또한, 승·하차 과정에서 휠체어와

동일하게 리프트를 이용할 수 있는지, 유아차 안전장치는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가동하는지 등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학습된 바가 전혀 없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승·하차 시간이 지체되는 동안 버스기사와 다른 승객들의 불만과 원성을 들어야 할 게 뻔하고, 내 내 눈치 봐야 하는 불편한 상황을 겪고 싶지 않아서이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광주라는 도시에서 차 없이 육아를 하는 것은 너무 힘들다. (지속가능발전운동을 하고 있음에도) 생각의 회로는 '이쯤되면 아이를 위해서 차를 사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로 귀결되고 만다. 시민의 이동권은 공공서비스의 필수영역인데 이러한 도시 공공성 문제를 개인 또는 소수의 문제로 치부해 당연한 권리를 너무 쉽게 포기하도록 가스라이팅 당해온 건 아닐까.

그러므로 '대·자·보 도시'가 반쪽짜리 정책이 되지 않으려면 보다 적극적인 지자체의 노력과 끈기가 필요하다. 먼저 교통시설 및 시스템 등 물리적 환경 개선의 과정에서 다양한 시민 구성원에 대한 섬세하고 구체적인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 동시에 제도과 정책을 눈치 보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실제 이용자들, 특히 교통약자의 관점에서 고충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었으면 한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민과 함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의 가치와 진정성 있는 상호이해에 기반한 시도와 실험들을 통해 지속가능한, 포용도시 광주라는 단단한 열매를 맺게 되리라 믿는다.

기고



이경선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기획부장

최근 지자체에서 도시회복을 목표로 '대(중교통)·자(전거)·보(행) 도시' 정책을 추진한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도시의 교통체계 구축은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열한 번째 목표인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는 도시와 주거지 조성을 위해 도시교통 인프라는 기후위기 등 환경적 측면뿐 아니라 노동, 주거, 교육, 돌봄과 같은 필수적인 사회경제적 활동과 결부돼 있고 이는 도시 내부의 양극화와 불평등, 불균형 등을 비롯한 사회적 구조 전반에 연동한다. 특히 저출생과 고령화 등 인구위기 측면에서도 도시 교통체계는 매우 중요한 대응 요소이다.

이처럼 대·자·보 정책은 미래도시로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계획이라 할 수 있기에 기대만큼 격정적 때론다. 그 중 가장 우려되는 지점은 정책 대상자로서 비교통약자와 교통약자의 평등한 이동권 보장에 대한 부분이다. 즉 교통약자의 권리를 시혜 또는 배려의 관점에서 '편의' 정도로만 인식하는 과거의 행태를 답습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흔히 교통약자를 장애인으로 한정지어 생각하는데